

5th Raonatti in Thailand

5월 보고서





1. Chiangmai Nurseru Center
 2. 치앙마이 YMCA 새해 행사
 3. 빠댕 선생님의 수업 노하우 전수
 4. 보고서 준비
 5. 주말학교 수업
 6. Visa Trip
 7. 마을 준비
 8. 홈스테이
- + 홈스테이 & 학교 느끼점

5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3 보고서 준비
4
5
6 중간보고 발표
7 주말학교 수업



8	9	10	11	12	13
			Visa Trip		

15
16
17
18
19
20
21

홈스테이 & 학교 수업 준비



22	23	24	25	26	27	28
	홈스테이 시작 >_<				다우 & 어 선생님 환송회	

29
30
31



5기 태국팀 ♥

1. Chiangmai Nursery Center

4월 26일, 28일에는 Chiangmai Nursery Center을 방문했습니다. Chiangmai Nursery center는 산캄평에서 40분 가량 차를 타고 도착한 Mae On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나무 묘목을 길러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무를 분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장 수요가 많은 턱우드를 주 묘목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첫번째 방문날에는 이곳의 소개와 전반적인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눈으로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묘목을 기르는 과정과 이곳에서 주로 길러내고 있는 나무의 종류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묘목 실험실과 어느 정도 자란 나무들을 옮겨 심는 과정, 씨앗의 종류에 따른 발아방법 등을 배웠습니다.



두번째 날에는 저희가 직접 이 곳의 활동들에 참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은 간이 화분에 흙을 담는 일과 어린 모듬들 주변에 있는 잡초를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2. 치앙마이 YMCA 새해 행사



4월 27일은 치앙마이 YMCA에서 새해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YMCA스태프들과 새해를 기념하고 축복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원로임원들이 그릇에 물을 받아 꽃을 물에 적셔 우리들의 머리 아래로 물을 뿌리며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태국 북부지역의 전통 춤을 감상하고 이 지역의 전통식사인 '간푹'을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간푹'이란 그릇을 뜻하는 간과 밥상을 뜻하는 푹이 합쳐진 의미입니다. 참석한 사람 모두가 태국의 전통 의상을 입고 모여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행사하는 모습이 우리에게서 신기한 체험으로 다가왔습니다.





3. 빠댕 선생님의 수업 노하우 전수

4월 29,30일 빠댕선생님에게 아이들을 수업할때 필요한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20년을 넘게 교직에 있으시면서 직접 경험하신 방법과 스킬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노래를 가르칠 경우에 먼저 아이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배경음악을 틀어놓고, 노래와 관련된 사물, 그림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집중을 유도하고 질문을 던지며 아이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방법 등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빠댕선생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가 직접 수업을 준비해서 실전처럼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노래를 선정해서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빠댕선생님과 수업에서는 우리가 막연하게만 생각하던 수업 방식을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각자가 직접 수업하는 실전연습을 하면서 선생님께 조언을 받아 수업을 체계적으로 진행 할 수 있게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홈스테이 학교에 들어가서 이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응용할 예정입니다.



4. 보고서 준비



5월 첫째 주는 우리가 지금까지 활동한 내용들과 태국생활에 대한 느낌을 발표할 보고서 준비를 했습니다. 산캄팜 YMCA스텝들에게 제출할 영문 중간보고서 및 발표를 준비하면서 바쁜 한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5월 6일 YMCA스텝과 마을 지인들이 참석한 자리에게 우리의 발표시간을 가졌습니다.



발표를 마친 후에는 피디의 새해 덕담이 있었습니다. 치앙마이 YMCA와 같은 방법으로 나뭇
앞으로 물을 뿌리며 건강과 행복 등을 기원해주셨습니다.



5. 산캄펑 YMCA 주말학교에서 수업

매주 열리는 산캄펑 YMCA 주말학교에서 바댕선생님에게 전수받은 수업노하우를 직접 수업에
적용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어동요를 가르치며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빠당선생님에게 수업을 받기 전, 우리가 수업을 해오면서 느낀점과 수업을 받고 난 이후를 비교해 보았을 때 확실히 수업이 더 체계적으로 잘 진행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활용하고 율동과 같은 활동적인 수업방식을 통해 아이들의 참여를 좀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13일 여행 첫날에는 왓롱쿤(백색사원)을 방문했습니다. ‘찰렘차이 꼬싯비빔’이라는 유명한 불교예술 아티스트가 사재를 털어서 혼자 10년간 이 사원을 건축 중 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상상 속의 극락과 지옥의 모습을 이 사원을 통해 표현했다고 합니다. 사원 입구로 들어서면 좌우로 아우성치고 있는 인간의 손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지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처의 청정과 순수를 표현하기 위해 흰색을 사용하였고, 반짝이는 유리조각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 비추어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경넘기!

14일에는 태국 최북단 도시인 매사이로 향했습니다. 작은 강을 연결하는 다리를 사이에 두고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곳이었습니니다. 다리를 건너면 언어와 풍습이 다른 미얀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국경 근처에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 특히 토산품, 태국 CD, VCD복제품 등을 주로 팔고 있었다. 수많은 상점이 줄을 잇고 있었으며 이 지역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국경을 넘나들며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지현 단원과 이해영 단원이 DVD를 구매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 DVD를 실행 시켰는데 김지현 단원의 것은 공CD였고, 이해영 단원의 것은 태국어 더빙이였습니다.

Doi Tung Royal Villa & Mae Fah Luang Garden



2시간 가량 미얀마에 머문 후에는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Doi Tung을 방문했습니다. 도이퉁이란 의미는 태국어로 '깃발이 있는 산'으로 해석됩니다. 도이퉁 정상에 있는 로얄 가든과 로얄 빌라를 방문했습니다. 현국왕의 친모가 실제 거주했던 곳으로 로얄 프로젝트로 멋진 화원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왕친모가 살던 로얄빌라는 반바지 차림으로는 입장이 불가능했습니다.



태국내에서 유명한 도이퉁 커피를 이곳에서 직접 마시며 즐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이퉁 커피는 왕비의 어머니가 설립한 고산 소수부족의 수익증대, 복리증진을 위한 재단 사업의 일 부분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태국내에서 소비가 되며, 직접 커피 전문점 체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앙라이 지역에서 커피가 재배되게 된 것은 불과 몇 십년 전이라고 합니다. 원래 아편재배로 유명하던 이곳은 태국 정부의 아편 퇴치 정책과 왕실의 로얄프로젝트와 같은 노력으로 고산족들도 아편을 버리고 고산포도와 토양에 맞는 새 농작물을 경작하게 되는 변화를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것이 바로 커피입니다.

www.doitung.org



로얄프로젝트란?

현 국왕인 푸미폰 국왕의 정책은 1000개나 이르는 로얄 프로젝트로 상징됩니다. 대부분이 하층민과 소수민족을 위주로 하는 정책으로 태국 고지대에 사는 태국 소수민족들에게 아편으로 얻어지고 있는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적인 작물을 제공해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치앙라이 YMCA사업

비자 여행 셋째 날, 치앙라이 YMCA에서 주력하고 있는 구순구개열(언청이) 아이들 치료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태국인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치료를 할 수 있지만, 인접국인 라오스, 버마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이 없어서 수술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치앙라이 YMCA는 그곳까지 사업을 확장하여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후에는 Thoeng에 있는 마을에서 경제적으로 소외된 가정을 방문해 준비한 생활용품과 간식들을 전달했습니다.



7. 홈스테이 준비

두달간의 홈스테이 기간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학교에서 구성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영어연극, 난타, 미술부, 합창, 운동회, 환경 캠페인, 한국의 날 등등 여러 아이디어를 토의하였습니다.



8. 홈스테이



태국팀의 홈스테이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팀원들 각각이 태국 현지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합니다. Doisaket에 위치한 반미양 마을에서 이제 우리의 두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수업을 하는 PANGNAMTU 학교는 전교생이 약 60명정도로 작은 학교입니다.
선생님 4분과 우리 라온아띠 태극팀 5명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꾸려갈 학교 생활이
무척 기대됩니다.



홈스테이와 학교 느낌

김태훈 단원



홈스테이

내 집이 아닌 다른 가정집에 들어가서 살게 된 건 처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만큼 걱정도 컸다. 하지만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가족들을 만나고, 생각했던 것 보다 좋은 내방을 보고나니 처음 걱정은 금세 잊었다. 우리 가족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이모와 이모부, 그리고 손자와 손녀 이렇게 여섯 가족이었다. 할머니께서는 분식점을 하시는데 그곳에서 꼬치를 파신다. 나는 아침마다 학교가기 전 할머니를 도와 함께 꼬치를 팔았다. 방과 후에는 손자인 '플록'이와 축구를 하러 가거나, 저녁을 먹고 함께 TV를 보고, 서로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동시에 근처에 사는 다른 팀원들의 집을 방문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마을 사람들과도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생활

나는 2,3학년을 맡았다. 두 학년이 모여있어 인원이 가장 많고, 너무나 개구지고 조금은 무례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처음 당황함을 느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내가 그들의 많고 순수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어갈 때쯤, 학생들도 나를 선생님으로 인정해주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창 말썽부릴 때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고는 말 할 수 없다. 하지만 서로를 느끼고 공감해 가면서 하루하루 새롭고 신나는 일들이 생길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가벼운 발걸음으로 학교로 향한다.

이혜영 단원



홈스테이

떨리는 마음으로 홈스테이에 들어가게 된지 벌써 2주가 다 되어간다. 처음 홈스테이 가족들을 만났을 때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소녀 같은 우리엄마, 동네 개구쟁이 같은 우리아빠, 든든한 왕언니와 그의 귀여운 아들, 우리 집 막둥이 조이와 함께 새로운 마을 생활을 시작하게 된 나는 어쩌면 든든한 가족 덕분에 어깨를 펴고 마을에서 우리 집의 새로운 딸로서 지낼 수 있었다. 우리엄마는 내가 출근하는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유아원의 선생님께서 근무하시고, 우리아빠는 우리학교 학생들 등하교시간에 운전해주시는 일을 하신다. 그리고 왕언니는 우리 동네 병원에서 일을 하시고, 왕언니의 귀여운 아들 나인이는 우리학교 1학년을 재학 중이다. 막내 조이는 도이스켓 고등학교 재학중인데 학교까지 거리가 꽤 멀어 매일 새벽5시에 일어나 준비를 해야 한다. 모두들 바쁘지만 또한 여유있게 인생을 사는 우리 가족 사이에서 나 역시 그렇게 지냈다. 너무나 다르게 살아왔던 그들과 가족이라는 인연을 맺어 산다는 것은 내게는 아직도 가슴 떨리는 기분 좋은 일이다.

학교생활

2,3학년을 맡게 된 나는 첫날부터 이 아이들이 보통내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욱 더 곤란했고, 조금은 개구쟁이인 아이들과 함께 어떻게 수업을 꾸려 나가야할지 막막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몇몇의 아이들은 복도에서 일대일로 훈계 아닌 훈계를 하기도 했었다. 나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수업 도중 밖에 나가서 놀고 하는 일들이 처음에는 아이들만의 잘못이라고만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 학교 시스템상 아이들은 수업시간과 쉬는시간의 구분을 교육받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아이들에게 수업시간과 쉬는시간의 개념과 그 단순한 규칙이 아이들의 교육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역시 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개구쟁이들과 정이 들고 아무리 우리학교의 가장 말썽꾸러기 2,3학년이지만 어느 학년보다 내 눈에 더 특별하고 예쁜

2,3학년들과 골짜기 갈해보고 싶은 마음이다.

이정표 단원



홈스테이

홈스테이에 대해선 태국파견 전부터 걱정도 많이 하고 각오도 계속 다지던 부분이었다. 가장 나에게 힘들게 다가오지만 꼭 경험했으면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걱정했던 것 보다 방은 매우 마음에 들었다. 적당히 작은 크기에 벌레들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화장실 겸 욕실은 처음에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었다. 화장실의 형태가 태국식인 것은 각오한 일이었지만 다소 더러운 화장실은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었다. 4일쯤 되고 난 이후부터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다.

가족은 할머니와 손자 둘이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는 밥에 있어서 이것 저것 많이 신경을 써주시려고 했다. 사실 나는 고기류만 먹고 야채를 잘 먹지 않는 편이라 신경써주신 것이라해도 음식을 먹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그렇지만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말이 안됐다. 그래서 다소의 적응이 필요했다. 그 이외에 생활에 대해선 첫째 손자인 '윤'이 신경을 많이 써주었다. 방이 많이 더워서 땀을 흘리자 선풍기를 챙겨주었고 그 외에 멀티탭 같은 소소한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었다. 저녁때는 '윤'과 축구를 하거나 가벼운 근력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함께했다. 아무래도 할머니보다는 '윤'과 함께해서 가족과 가까워지는 것이 좀더 빠른 방법일 것 같다.

학교생활

내가 맡은 학년은 4, 5학년 이었다. 12명 학생들 중 8명이 여학생인 반이었다. 내가 가진

역량이 주로 음악, 미술 쪽이었으므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의 집중과 호응은 비교적 수월한 편이었다. 다만 여학생들이 많은 반이어서 그런지 어딘지 설명하기 힘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

수업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역시 언어였다. 담임선생님의 동생분이 가끔 오시는데 영어를 잘하셔서 오시는 날이면 수업은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됐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날이 대부분이었고 힘든 의사소통을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해결을 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더 나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 같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앞으로 수업하는데 있어 모든 학년 중 가장 나에게 적합하고 수월한 학년을 맡게 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하나 단원



홈스테이

매파&폰&다오 + 계곡이 집 앞을 흐르고 나무가 가득한 우리집

아침 5시쯤 어슴프레 눈을 떠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한다. 재료를 손질하고 어머니가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시면 나는 집을 청소한다. 그리고 학교갈 준비를 하고 손녀인 폰과 함께 밥을 먹는다. 폰 밥먹이기는 삼캄팍YMCA Day Camp아이들을 생각나게 한다. 밥먹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건가 매일 깨닫는다. 한시간 가량 밥과 씨름하는 폰을 달래며 아침을 먹고나면 8시 폰은 내가 다니는 학교 안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폰과 함께 손잡고 등학교를 한다. 학교에서는 1학년을 맡아 하루 2시간씩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한다. 학교가 마치는 시간은 4시. 폰과 함께 집에 돌아와서는 폰에게 동화책을 읽어주거나 어머니를 따라 슈퍼에 가거나 다른 이웃집에 놀러간다. 저녁을 준비하고 어머니가 즐겨보시는 태국드라마(태국은 신기하게도 드라마를 연속으로 몇시간씩 해주는 것 같다)를 같이 시청한다. 크게 듣는걸 좋아하시는 어머니는 항상 볼륨을 최대로 맞추신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질문을 하면 “콘디! (좋은 사람) / 콘 마이디(좋은 사람)”으로 설명해 주신다. 이렇게 시간을 함께 나누고 공간을 함께 채워나가면서 나는 우리집에서 살고있다.

학교생활

학교 다니기 정말 싫어하던 내가 선생님의 역할을 맡고 있다. 처음 학교에 와서 든 생각은 '아 이 엄청난 책임감을 어떻게 짊어지고 수업을 할 것인가'. 약 두달간의 학교생활에서 내가 아이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학교생활이 만만치 않아야 한다고 다짐한다.

나는 1학년을 맡았다. 쓰다, 펑, 보스, 꼬, 멩멍, 나이. 6명의 개구쟁이들이 모여있다. 아이들은 교과서보다는 활동하는 수업을 더 좋아한다. 그리고 영어수업을 좋아한다. ABC노래를 그림을 그릴 때 틀어달라고 부탁할 때면 너무 귀엽고 예쁘다. 수업시간을 이끌어 갈 때는 1학년 담당 선생님인 조이선생님이 항상 도와주신다. 오늘 수업할 내용을 먼저 선생님께 설명드리면 선생님께서 아이들에게 태국어로 설명하시고 아이들이 수업내용을 숙지하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수업시간에 내가 일방적으로 말만 할 수 있고 알아듣지 못해서 아이들이 질문하는 내용에 답하기가 어려워 너무 많이 아프다. 질문한 내용을 이해하고 유창하게 설명해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다.

아이들은 나에게 나의 역할에 대해 항상 고민하도록 만든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 은연중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감정, 느낌, 행동, 심지어 말투. 아, 사실 이미 아이들이 나의 태국어 발음을 수업시간에 따라하며 즐거워하는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내가 가르치는 것들, 나의 의도와 아이들이 받아들여지게 될 느낌, 나와 아이들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하게 된다. 물론 한 명의 한국인으로 미치는 영향들도 있겠지만, 한 명의 사람으로서 아이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생각하면 끊임없는 공상과학소설을 쓰게 된다.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소소한 일들에 나의 가치와 반성을 이곳에 쏟아 부으려 하고 있음을 나 스스로 느낀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라는 것을 남은 두 달간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친다.

학교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대한 반성과 고민. 공유하는 존재와 가치에 대한 사람들간의 연대를 배우는 공동체의 가장 기본. 배움과 돌봄의 가장 기초적인 공간으로 지켜내고 만들어 나가야 할 책임. 이러한 목표를 내 마음에 담아두자. 작은 일에도 아이들과 나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행복한 공유의 감정을 느끼면 좋겠다. 그래! 뷁 뷁 후아 막막 (엄청 머리 아파) 고민은 여기서 멈추고 아이들과 함께 즐기자.

김지현 단원



홈스레이

새로운 가족을 만난다는 설렘과 걱정. 그리고 좋은 딸이 되고 싶다는 욕심. 이 모든 것을 안

고 드디어 나의 가족과 만났다. 우리 아버지는 마을 이장님이시고, 어머니는 학교 식당에서 일을 하신다. (고로 난 이장댁 딸내미다.) 나의 여동생 편은 우리 엄마·아빠의 손녀인데, 현재 편의 어머니는 치앙마이 시내에서 일을 하고 계신단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가는 편을 배웅하면, 어머니는 내게 커피를 끓여주신다. 그러곤 아버지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태국어 회화를 연습한다. 뭘말인지도 모르고 계속 차이차이(yes)만 연발하는 내게 아버지는 (일말의 배려 없이) 더 빨리 그리고 더 크게 태국어를 쏟아내신다. 그렇게 아침을 먹고 나면 엄마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바로 코앞의 학교로 향한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를 따라 마을 이곳 저곳을 구경하거나, 근처 팀원의 홈스테이 가정에 모여 놀고는 한다. 그러다 밤 때가 되면 다 같이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 9시가 땡!되면 모두들 잠자리로 향한다. 일상은 이렇듯 반복된다.

이렇게 태국 농촌의 한 가정에서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와중에도 드는 생각이란, '난 이들에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란 물음이다. '가족'이 된다면 어떤 의미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생판 남모르던 큰 까올리(한국사람)가 두 달간 이 가정과 부비며 산다한들, 우리 서로에게 어떤 의미로 남게 될 것이며, 어떤 추억으로 기억될까. 결국, '손님처럼 대접하고 챙겨줘야만 하는 불편한 이방인으로 남지는 않을까'하는 고민들도 슬슬 올라온다. 그럼에도 일상의 순간순간을 함께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좀 특별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 있지 않을까? 같이 TV보며 엄마 팔다리를 주물렸던 일도, 매일 밤 Face book 하는 순하디 순한 편 옆에서 내가 계속 참견하면 은근 짜증났던 편의 표정도, 마을 이장님이라 밤 9시가 되면 방송을 하기 위해 수십 번 헛기침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이런 사소한 일상이 지나고 나면 다 깨알같은 추억으로 기억되니 말이다.

학교 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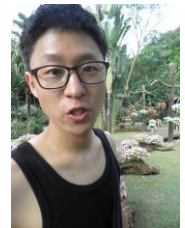
내가 맡고 있는 학년은 6학년. 그리고 주로 가르치는 과목은 영어이다. 사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학교 오기 전부터 생각했던 나의 마음가짐이 있다. 무엇을 '가르치려 들지 말자'. 그 무엇이 영어가 됐든, 아이들과의 생활이 됐든 난 이곳에서도 아이들과 똑같이 배워야 하는 23살의 철없는 학생이라는 마음가짐.

사실, 내가 영어를 가르치면 뭘 얼마나 대단하게 가르칠 수 있겠는가. 아이들과 말 통하는 태국 선생님이 있는데 말이다. 또한 내가 이곳에 머무르는 시간은 단 두 달. 그 두 달 동안 영어든 무엇이든 가르친다 한들, 갑자기 아이들의 학업성취도가 눈부시게 발전하는 것도 당연치 않다. 애초, 내가 목표했던 바도 그것이 아니기에. 그렇다면, 난 이곳의 아이들과 무엇을 어떻게 나누고 공유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현재 진행형이다. 다만, 내가 원하는 것은 알파벳도 모르던 아이들이 내가 갈 때 쯤이면, Hello! Teacher!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까올리 언니(누나)하고 참 재밌게 지냈어' 정도의 추억만 간직해줘도 행복할 것 같다. 그저 이 시간을 아이들과 행복하게 그리고 감사히 누리고 싶다.

감사합니다



사진가 김태훈 단원



6월에 다시 만나요~